

美-이란, 2차 협상 불발...협상기간 휴전은 유지

트럼프, 일방적 휴전연장...확전부담에 '시간벌기' 관측
이란핵·호르무즈 쟁점 간극 여전...해협 봉쇄 두고 긴장

미국과 이란의 21일(현지시간) 2차 중전협상이 불발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실상 무기한 휴전이 아니라 '협상기간 중 휴전 유지'를 선언했다.

자신이 제시한 휴전 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나온 조치로, 당장 미국의 대(對)이란 인프라 공격 개시 및 휴전 우려는 완화되는 모습이다.

다만 이란의 핵 프로그램과 호르무즈 해협 문제 등 핵심 쟁점에서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여전히 불확실한 데다,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 조치 등으로 긴장이 이어지고 있어 상황을 낙관하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란 지도부와 협상 대표단이 통일된 협상안을 내놓고, 그에 따라 협상이 어느 쪽으로든 결론 날 때까지 휴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이란의 지도부와 대표들이 통일된 제안을 내놓을 때까지 이란에 대한 공격을 유보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이란 측의 제안이 제출되고 논의(협상)가 어떤 식으로든 마무리될 때까지 휴전을 연장할 것"이

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연장 시한은 제시하지 않아 사실상 중전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휴전을 이어가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이란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이란 국영방송은 이란이 미국의 휴전 연장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지난 2월 28일부터 전쟁을 이어온 미국과 이란은 파키스탄의 중재로 지난 7일 '2주 휴전'에 합의했다. 당초 이날이 휴전 만료 시한으로 여겨졌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휴전 종료 시점을 미 동부시간 기준 22일 저녁으로 제시한 바 있다. 그동안 합의 불발 시 군사행동 재

개를 공언해 온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무기한 휴전을 선언한 배경에는 휴전 만료를 앞두고 2차 중전 협상이 불발된 상황에서 군사행동 재개에 따른 부담을 고려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미국이 앞서 예고한 대로 이란 발전소와 교량 등 주요 인프라를 공격할 경우 파장이 적지 않은 데다, 국제 유가 충격도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이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거기에다 이란이 반격에 나서 경우 양측 충돌이 확산 양상으로



미국과의 첫 중전 협상 당시 이란 대표단.

연남

번지면서 출구 전략 마련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국정수행 지지율이 30% 초반대까지 떨어진 것으로 일부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상황에서 전쟁 장기화 및 휴전은 트럼프 2기 후반부 의회 지형을 결정할 11월 중간선거에도 큰 악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과 그 측근들의 판단일 수 있어 보인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는 휴전 연장을 통해 시간을 확보하는 한편,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 등 압박 수단을 유지하며 협상력을 높이려는 전략을 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가능해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휴전 연장 발표에 따라 일단 양측은 중전을 위한 물밑 논의를 이어갈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핵심 쟁점인 이란의 우라늄 농축 중단과 우라늄 비축분 처리 문제,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정상화 여부 등 핵심 쟁점을 둘러싼 입장차가 여전히 합의까지는 적지 않은 난관이 예상된다.

군사적 긴장을 자극하는 변수들도 잇따르고 있어 중전 합의의 타결 전까지 아슬아슬한 휴전 상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은 호르무즈 해협 등에서의 대이란 해상봉쇄를 가드로 쥐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을 원하는 합의안이 나올 때까지 압박용으로 계속 쓰려 할지, 협상 재개를 전제로 일단 '봉인'할지가 협상 재개 여부 등에 관건일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트럼프 지지율 33%로 5%p 하락
AP·시카고대 여론조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0% 초반대로 떨어지고, 경제 정책에 대한 지지율은 이보다 더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AP 통신과 시카고대 여론조사센터(NORC)가 지난 16~20일 미국 성인 2596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1일(현지시간)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표본오차 ± 2.6%p)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33%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관의 지난달(19~23일) 조사 때의 38%보다 5%p 하락한 것으로,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집권 2기 행정부를 출범한 이후 최저치다.

AP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은 중간선거에서 연방 상·하원 다수당 지위를 지키려 하는 공화당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짚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책 지지율은 지난달 38%에서 이번 달에는 30%로 전반적인 지지율보다 더 크게 떨어졌다.

이란 문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32%로 지난달 35%에서 살짝 더 내려갔다. 이는 이란과의 휴전 및 중전 협상이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생활 물가 대응의 경우 지지율이 더 낮아 응답자의 고작 23%만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답해 이 문제에 대한 미국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줬다. 생활 물가 지지율은 트럼프 대통령 지지층인 공화당원 사이에서도 51%에 그쳤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정책에 대한 지지율만 40%를 기록하며 지난달 38%에서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컨설팅 · 설치 · 인허가 · 리파워링 · 유지보수

빛이 수익이 되는 순간!
태양광 에너지로 만드는 지속가능한 내일!

(주)TH홀딩스

☎ 대표번호 : 062-953-8311 / 010-4572-7164